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중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임 선 영[†]

가천의대 길병원
신경정신과

조 현 섭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지역재활본부장

이 영 호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중독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이들의 성장배경, 중독과정에서의 음주형태, 음주동기, 심리기제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총 10명의 여성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면접을 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음주형태는 알코올중독 초기단계부터 혼자서 주변의 가족이 모르게 술을 마시는(단독음밀 음주)형태로 나타났고 단독음밀 음주는 알코올중독 중기단계까지 계속되다 말기에 이르러서 주변의 가족들이 이들의 음주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과정의 초기와 중기단계에서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음주동기는 대부분 부정적 정서 완화 목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각 중독단계에서 술에 의존하는 심리기제로는 자기위로, 기분전환, 자기고양이 발견되었다. 말기 중독단계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의존이 모든 사례의 음주동기로, 이 시기의 음주의 효과는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임상적 의의를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미래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언급되었다.

주요어 : 알코올중독, 여성 음주, 사례연구, 질적 분석

* 이 논문은 저자의 2002년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임 선 영 / 가천의대 길병원 신경정신과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98
TEL : 032-460-3236 / E-mail : zygon@hanmail.net

최근 여성 음주자들이 급증하면서 여성 알코올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개방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 음주자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 알코올성 장애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남성 알코올성 장애자에 비해 여성 알코올성 장애자의 비율은 증가되고 있다. 한국음주문화센터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7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 음주자가 85.4%, 여성 음주자수는 54.7%로 남녀간에 30%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2000년에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 중 음주자가 94.6%, 여성 음주자가 80.7%로 그 격차가 10%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알코올백과, 2002). 이정균(1987)의 역학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알코올성 장애 전체 평생 유병율은 21.98%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에서 42.86%, 여자에서 2.63%로 20 : 1 정도로 남자의 알코올성 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2001)에서 시행한 최근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성 장애 평생 유병율은 남자 25.2%, 여자 6.3%, 전체 15.9%로 나타나 전체 알코올성 장애자와 남자 유병율은 1986년의 이정균(1987)의 보고에서 보다 감소한 반면 여자 유병율은 6.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알코올성 장애의 비율은 4 : 1로 그 격차가 크게 감소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알코올성 장애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대부분은 남성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일찍이 Winokur(1969)은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부친이 습관성 음주자이고 모친이 우울증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Dixit와

Crum(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문제성 음주 경력 중 부의 문제성 음주 경력이 여성의 문제성 음주를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Fortin와 Evans(1983)의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통제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 문제가 심각할수록 음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와 일치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길홍, 이수일, 김종녕(1973)은 한국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부모의 사춘기 이전 조기 사망, 부모의 알코올중독 가족력, 가족 특히 모친이나 형제자매가 우울증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입원한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성일(1993)의 연구에서도 이들의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알코올중독의 부모를 가진 경우가 46.7%였다. 남녀 알코올중독 환자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남성의 80.8%와 여성의 57.1%가 가족 중에서 지나친 음주력이 보고된 바 있다. 여성 중독자들은 남성 중독자들보다 알코올중독 가족력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성 알코올중독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이 유전적 요소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환경적 요소의 작용이 남성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어린 시절 성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음주관련 문제나 다른 불법약물 사용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Wilsnack, Vogeltanz, Klassen, & Harris, 1997). Bensley, Eenwyk와 Simmons(2000)의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에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 받은 경험은 여성

의 문제성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남녀 문제성 음주자 모두에서 어린 시절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문제성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것을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음주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요인으로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다(Galaif, Stein, Newcomb, & Bernstein, 2001).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남성 알코올중독자에 비해 가족의 죽음, 이혼, 남편의 구타 등 상실의 경험이 많다고 보고되었다(성상경, 신동환, 송중호, 이규향, 1999). 그러나 Gomberg(1989)는 여성 문제성 음주자와 여성 건전 음주자간에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고통스러운 사건 상에는 차이가 없었고 단지 여성 문제성 음주자들은 자신들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고통스런 삶의 사건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남성 알코올중독자보다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에게서 우울증의 공병 비율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어왔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은 우울감이 음주행위를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 남성 알코올중독자들의 78%에서 알코올중독이 일차 증상이고 우울이 이차 증상임에 비해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66%가 우울이 일차 증상이고 알코올중독이 이차 증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Helzer & Pryzbeck, 1988). 국내 연구에서 박두병, 남범우, 신광철, 나철(1996)은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84.2%가 우울장애를 동반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Dixit와 Crum(2000)가 문제성 음주의 위험이 높은 여성 음주자들을 1년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에서 우울장애의 경력과 우울증적 증상의 빈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문제성 음주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남/여 알코올중독자들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비교한 연구에서도 남성 알코올중독자와 달리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우울감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Schutte, Hearst, & Moos, 1997). 그러나 우울감의 정도가 심할수록 반드시 음주를 더 많이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Vaglum, Vaglum와 Larsen(1987)의 연구에서는 만성 기분부전증을 동반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들과 주요 우울장애를 가진 여성 알코올중독자들 간에 음주소비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비알코올중독인 여성들에서는 오히려 우울감은 알코올 소비의 감소를 예언하였다.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우울증 증상이 음주 소비나 음주 문제를 예언하지 못했고 남성에서는 우울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음주 소비가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tte, Moos, & Brennan, 1995).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음주를 더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울감은 남성에 비해 여성 음주 문제를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고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을 회피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치료적 개입이 늦어져 병원에 왔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적 관점이 여성으로 하여금 음주의 양이나 횟수를 줄이게 하는 보호적 역할로 작용하였다. 여성 음주자에 대한 전통적 통념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중독자를 도덕적 결핍자 또는 스스로 병을 자초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통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중독에 대

해 심한 수치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여성 중독자는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다’라는 통념으로 인해 술 취한 여성이 강간이나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Klassen(1986)은 여성 중독자가 술을 마실 때 불특정의 성적 파트너(sexual partner)를 선택하는 경우는 8%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 공격을 당한 경우는 60%에 이른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런 여러 사회적 관념이 중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더 숨기게 만들고 특히 기혼자, 직장인,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일 경우 더 혼자서 몰래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다(김길숙, 한진희, 1999). Murray(1989)도 낮은 자존감은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이며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음주를 더 숨기게 만들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알코올중독인 배우자나 파트너를 가진 경우가 많고 이들의 음주패턴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양적 연구들에서는 중독자 개인의 삶에서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중독과정이라는 긴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음주가 시작되어 음주문제로 진행되어가며 중독으로 가속화되는지, 이 과정에서 중독자 삶의 고유한 여러 가지 내적 외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독자의 사고와 정서는 중독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사고와 정서가 중독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중독에 이르는가, 어떤 삶의 내적 외적 문제

들이 이들의 중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들이 술을 마실 때 경험하는 내적 경험의 세계는 무엇이길래 이들은 계속해서 술에 의존해 가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이들이 회고하여 보고하는 언어적 자료를 질적 분석하여 여성 알코올 중독과정에 영향을 미친 심리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고 중독과정에서 중독자 개인이 체험한 내적 경험의 세계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들은 지역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2명, 지역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음주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았던 여성 2명, AA(단주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명의 여성 중 6명은 과거에 정신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진단 받고 외래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현재 단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4명의 여성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으나 본 연구자가 이들과 면접을 실시한 결과 DSM-IV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의존 진단 준거에 부합되는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알코올중독자들이었다. 이들 총 10명의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을 대상으로 1-2회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면접 양식을 이용하여 반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인터뷰 회기당 소요시간은 1-3시간 정도였다.

도구

사회인구학/ 음주력 면접양식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자료와 음주력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양식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면접 양식을 통해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양식은 크게 성장배경, 학교생활, 직업생활, 결혼생활, 음주동기, 통제력 상실과정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이다. Hill, Thompson과 Nutt-Williams(1997)는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과 Elliot(1989)의 포괄적 분석방법(Comprehensive Process Analysis)을 결합하여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은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들을 보완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복수의 연구자(평정자)들을 이용,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그리고 사례간 결과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자료분석과정에서 처음에 평정자들은 독립적으로 자료를 평가한 다음, 각 평정자들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여 차이점은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절차를 따른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 것은 그 의미에 모호함이 많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주관적 해석이 작용할 소지가 많다. 단일 연구자가 자료를 조사할 때 중요한 것을 놓치지만, 반면에 자료를 보는

여러 시각을 갖는 것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개인적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평정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료에 대한 제일 정확한 표현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설명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또한 평정자들이 중요한 자료를 보지 못하거나 자료 해석에 편향된 관점이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두 명의 감사가 합의 판단을 점검하는 절차를 따른다.

평정자

본 연구에 참여한 평정자들은 질적 분석 방법과 알코올중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임상 및 상담 전공 석사과정생 3명이었다. 본 연구자는 평정자들을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통해 총 2회에 걸쳐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본 연구자가 작성한 축어록 자료를 이들에게 배포하여 독립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게 하여 평정자들이 자료에 익숙해진 후에 총 2회에 걸쳐 자료 분석과 평정 방법을 연습한 후 본 평정을 실시하였다.

감사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상 및 상담 전공 박사과정생 3명이 평정자들의 합의결과를 검토하였다. 감사자들은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과정에서 평정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절차

자료준비

인터뷰를 통해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이 응답

한 증독과정에 대한 총 10개 사례의 내용을 축어록으로 준비한다.

영역코딩 (Developing Domains)

각 내용의 범주나 영역을 결정한다. 먼저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축어록 자료를 검토하여 영역과 범주를 개발한다. 그 후 모든 평정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 평정자들이 개발한 영역에 대하여 논의를 통하여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차이점을 확인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배경, 최초 음주경험, 음주형태, 증독과정(초기, 중기, 말기)을 개발하였다.

중심개념 코딩 (Construction Core Ideas)

원 자료를 더 간결한 용어로 요약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역시 각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읽고 요약한 다음, 3명의 평정자들이 한 팀으로 모여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차이점은 논의를 통해 합의해나갔다.

감사과정(Auditing of Domains and Core Ideas)

팀이 사례별로 중심개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다음, 감사는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중심개념을 말로 표현한 것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반영하는지 점검하였다. 팀과 감사의 결정이 불일치한 경우, 다시 팀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교차분석 (Cross Analysis)

각 영역에 대한 중심개념들을 범주화하기 위해 팀의 논의과정이 진행되었다. 각 영역에서 사례간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Elliot (1989)의 규정에 따라,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general) 범주, 50%이상 나타나

는 것은 전형적인(typical) 범주,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인(variant) 범주로 분류하였다. 단지 한두 사례에서만 적용되는 범주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제외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범주는 '모든'으로 전형적인 범주는 '대부분'으로 변동적인 범주는 '드문'으로 표기하였다.

감사과정(Auditing of Domains and Core Ideas)

교차분석 후, 다시 감사자가 자료를 검토하고 팀의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역시 팀과 감사의 결정이 불일치한 경우, 다시 팀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결 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사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5명, 40대(3명), 50대(2명)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5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2명, 고등학교 중퇴자가 3명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도 2명 포함되었고 나머지 2명은 이혼상태이며 1명은 별거 상태로 나타났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으며(6명), 학원강사(2명), 자영업(1명), 임시직(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한달 수입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사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례가 2명,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명이었고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명 있었다. 형제순위

는 둘째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첫째, 셋째, 막내, 여섯째, 외동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가톨릭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3명, 불교는 1명이었다. 전체 사례에서 5명이 현재 흡연자이거나 과거 흡연 경력이 있었다.

하루 음주량은 1-2병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2-3병은 3명이었고 1병 미만자는 1명, 4병 이상이라고 보고한 경우도 1명 있었다. 음주시 취하게 되는 빈도는 일주일에 3-4번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달에 3-4번은 3명, 한달에 1-2번, 일년에 1-3번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력

다음으로 음주력을 살펴보면,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는 소주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맥주가 2명이었고 1명의 경우는 소주와 맥주 모두를 주로 마신다고 하였다. 음주를 시작한 연령은 21-25세 사이 라고 보고한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16-20세 사이는 3명, 26-30세 사이는 2명으로 나타났다. 문제성 음주의 시작 연령은 3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명이었고 40세 이후도 2명 있었다. 음주 지속 기간은 5년 미만이 2명, 6년-10년 미만이 2명, 11년-15년이 2명, 16년-20년이 2명으로 나타났고 20년 이상인 경우도 2명 있었다.

성장배경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성장배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사례에서 가족 중에 술 문제로 사망했거나 술 문제가 심각했거나 술을 즐겨 마시는 가족이 발견된 점이다(표 1). 전체 사례 중 5사례에서 술 문제로 사망한 가족이 발견되었다. 2사례에서는 친할아버지가 술 문제로 사망했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2사례에서는 아버지가, 1사례에서는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4사례에서는 술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술 문제가 심각했거나 중독인 것 같다고 보고한 가족이 존재하였다. 1

표 1. 성장배경

범 주	내 용	모든	대부분	드문
가족력		모든(10)		
	술 문제로 사망		대부분(5)	
	친할아버지			드문(2)
	아버지			드문(2)
	지나친 음주문제			드문(4)
	남자 형제			드문(3)
	음주여부		대부분(8)	
	아버지 술 즐겨 드심		대부분(6)	
	형제들 술 많이 마심			드문(2)

주. 모든 =100%, 대부분 =50%이상, 드문 = 20%이상 -50% 미만, ()=사례의 수.

사례의 아버지는 술 문제가 심각하였고 3사례에서는 남자 형제의 음주 문제가 중독 수준인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그들의 아버지가 술을 즐겨 드셨다고 보고한 경우는 5사례였고 그들의 형제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보고한 경우는 2사례에서 나타났다.

전체 사례에서 술 문제로 사망했거나 심각한 음주 문제를 가족을 가진 경우는 8사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이들의 아버지들이 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술 문제로 사망했거나(2명), 술 문제가 심각했거나(1명),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 많았다(5명)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형제들도 술 문제가 심각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5명)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최초 음주경험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이 처음 술을 마시는 경험을 한 시기를 살펴보았다(표 2). 중요한 특징은 이들의 최초 음주경험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성인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술을 처음 먹어봤다고 보고한 사람이 4명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는 3명이었고 1명은 결혼한 후 처음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성인기 이전에 술을 경험한

사람은 2명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에 또래들과 어울려서 간헐적인 음주를 시작한 사람은 한 사례에서만 발견되었고 나머지 한 명의 경우는 고교 중퇴 후 직장 생활하면서 음주를 경험한 경우이다.

중독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는 Jellinek의 알코올중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초기(전알코올 증상단계), 중기(전조단계), 말기(결정적 및 만성 단계)로 나누고 중독자들의 음주형태, 음주 동기, 술을 마시게 되는 심리적 기제가 각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분석하였다. 음주형태를 '술을 혼자 마시는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시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혼자 마시는 경우는 단독음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시는 경우는 사교음주로 명명하였다.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이나 중독자에게 중요한 주변 인물이 중독자의 음주행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가 진행되는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공개음주와 은밀음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명명한 단독은밀 음주란 혼자 음주행위를 하며 가족이나 중독자에게 중요한 주변인물이 모르게 진행되는 음주행위를

표 2. 최초 음주경험

범 주	내 용	모든	대부분	드문
성인기			대부분(7)	
	대학교 재학 시			드문(4)
	고등학교 졸업 후			드문(3)
성인기 이전				드문(2)

주. 모든 =100%, 대부분 =50%이상. 드문 = 20%이상 -50% 미만, ()=사례의 수.

말한다. 사교공개 음주란 중독자의 음주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이루어지고 가족이나 중독자에게 중요한 주변 인물이 중독자의 음주 생활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독공개 음주란 혼자 음주행위를 하나 가족이나 중독자에게 중요한 주변인물이 중독자의 음주생활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교은밀 음주란 중독자의 음주행위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루어지나 가족이나 중독자에게 중요한 주변인물이 모르게 진행되는 음주행위를 말한다.

각 단계에서 중독자들이 술을 마실 때 느끼는 정서와 인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들이 술에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분류하여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음주동기는 크게 대인관계 사교 목적과 부정적 정서완화 목적으로 분류된다. 대인관계 사교 목적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술을 이용하게 되는 동기를 말한다. 부정적 정서완화 목적은 개인 내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이완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술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중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한 삶의 문제들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크게 관계갈등, 스트레스적인 사건, 심리 내적 문제로 개념화하여 분류하였다. 관계갈등이란 중독자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마찰과 갈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이 이에 해당된다. 스트레스적인 사건이란 중독자의 삶에 중독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할 만한 외부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학업을 중단하게 된 사건이나 남편의 법률적 문제 발생이다. 심리 내적 문제란 타인과의 갈등이나 중독자의 삶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

음에도 중독자 개인 내에서 심리 내적인 불편감이 발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생활에서 느끼는 무료함이라든가 불면증이 이에 해당된다.

중독자들은 삶의 문제들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술에 의존한다. 그러나 술에 의존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관적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자들이 술을 마실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효과를 술에 의존하게 되는 심리기제로 정의하였고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첫째는 기분전환(distraction)이다. 이는 술이 가져다주는 쾌감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기제이다. 둘째 자기위로(self-soothing)이다. 이는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는 심리기제이다. 셋째는 자기고양(self-grandiose)이다. 이는 술을 마시는 행위 혹은 술이 주는 효과를 통해 자기감(self)이 고양되는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는 심리기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중독과정에서 음주 동기, 촉발사건, 음주형태, 심리기제의 변화양상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중독과정 초기단계 (전알코올 증상단계)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이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정서완화가 음주의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9명). 초기 단계에 대인관계 사교목적이 음주동기가 된 경우는 단 한 사례에 불과했다.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부정적 정서를 야기한 삶의 문제들은 관계갈등, 스트레스적인 사건, 심리 내적 문제가 각각 3사례로 나타났다. 관계갈등으로는 남편과의 갈등이 2사례에서 나타났고

표 3. 중독과정 분석

범 주	내 용	모든	대부분	드문
초기	동기	부정적 정서완화 목적	대부분(9)	
	촉발사건	관계갈등		드문(3)
		스트레스 사건		드문(3)
		심리 내적 문제		드문(3)
	음주형태	사교공개 음주 밤		드문(4)
		단독은밀 음주 밤	대부분(6)	
	심리기제	기분전환	대부분(6)	
		자기고양		드문(3)
중기	동기	부정적 정서완화 목적	대부분(9)	
	촉발사건	관계갈등		드문(4)
		스트레스 사건		드문(3)
		심리 내적 문제		드문(2)
	음주형태	사교공개음주 밤		드문(2)
		단독은밀음주 밤 낮	대부분(6)	
	심리기제	기분전환	대부분(5)	
		자기 위로		드문(4)
말기	동기	심리적 신체적 의존	모든(10)	
	음주형태	단독공개음주 밤 낮	대부분(7)	
		단독은밀음주 밤		드문(2)
	음주효과	죄책감과 무력감	모든(10)	
		자살시도		드문(3)

주. 모든 =100%, 대부분 =50%이상. 드문 = 20%이상 -50% 미만, ()=사례의 수.

한 사례에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었다. 스트레스적인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가정형편상 고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던 사건,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된 사건으로, 자신의 소망에 반하는 이런 사건은 이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정주부인 한 사례에서는 남편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생

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됐다고 보고 하였다. 심리 내적인 문제로는 생활의 무료함(1명), 불면증이 여기에 해당된다(2명). 초기 단계에서 술에 의존하는 심리기제는 기분전환이 가장 많았다(6명). 자기고양은 3사례에서 나타났다, 자기위로는 한 사례에서만 나타났다.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음주형태는 초기단계에

서부터 단독은밀 음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6명). 이때의 음주행위는 모두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 단독은밀 음주를 하는 중독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였는데(5명), 이들은 남편과 아이들이 자고 난 후 밤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자는 형태를 보였다. 미혼 여성이었던 한 사례에서도 직장에서 퇴근 후 부모 모르게 밤에 혼자 은밀하게 술을 마셨던 경우도 있었다. 4사례에서 사교공개 음주가 나타났다.

중독과정 중기단계 (전조단계)

중기단계에서 중독자들의 음주문제를 가속화시킨 삶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로부터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에서 이완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술에 의존하게 되는 특징이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중독자에게 부정적 정서를 야기한 삶의 문제들은 관계갈등(4명), 심리 내적 문제(3명), 스트레스적인 사건(2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독자들의 음주문제를 가속화시킨 관계갈등으로는 결혼생활에서 남편과의 갈등이 가장 많았고(3명) 나머지 한 사례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가 자신의 친구랑 결혼한 사건이 술에 본격적으로 의존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심리 내적 문제는 삶의 무료함, 우울증, 공허감이 나타났다. 음주동기가 스트레스적인 사건의 발생이었던 사례의 경우(2명)에서는 뒤늦게 다시 대학을 입학하게 됨으로써 생긴 스트레스와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진 후 자신이 병간호를 맡게 되고 이로 인해 성취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서 생긴 좌절감이 본격적으로 술에 의존하게 된 동기로 나타났다. 초기단계에서는 한 사례에서만 나타났으나 중기단계에서 네 사례에서 나타난 심리기제는 자기위로이다. 중독자들은 자신의 삶

의 문제들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 속에 빠져서 술로써 자기를 위로하고 애도한다. 이 시기에는 초기에 나타났던 자기고양 심리기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단계에서 자기고양의 심리기제를 보였던 사람들도 중기단계로 넘어가면서 기분전환이나 자기위로 심리기제로 변한다. 음주형태에 있어서도, 중기단계로 넘어가면서 은밀음주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가 더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공개음주생활을 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7명이 은밀음주로 이행된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밤에 이루어졌던 단독은밀 음주가 낮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4명). 초기 단계에서 단독은밀 음주를 즐기던 가정주부들이 자신들의 음주행위를 남편이 알게 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자 남편이 모르게 술을 마시기 위해 남편이 출근한 후 낮에 술을 빨리 마시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혼녀였던 한 중독자의 경우에도 주변에서 제재를 가할 만한 사람이 없음에도 자신의 음주행위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기 위해 혼자 자신의 방에서 몰래 낮에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 중기에 단독은밀 음주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변에서 이들의 음주문제에 제재를 가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이다. 남편과 불화가 있었던 여성과 부모 몰래 술을 마셨던 미혼여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교은밀 음주도 한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남편 모르게 동네 아줌마들과 낮에 술을 마시고 남편이 오기 전에 술자리를 정리했던 경우이다. 중기단계에서 사교공개 음주생활을 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가정주부인 중독자들의 음주 행위는 중기에 낮에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중독자의 음주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편이 모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독자들이 술에 대한 조절능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남편이 귀가하기 전까지 술에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가족들이 중독자들의 음주문제가 심각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중독과정 말기단계 (결정적 및 만성 단계)

알코올중독 말기단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독자가 술에 대한 통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독자가 심리 신체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모든 사례들에서도 말기단계에서는 술을 마시는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각 개인마다 다른 일정한 주기로 반드시 술을 마셔야만 하는 상태가 되며 이때부터는 더 이상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 없게 된다. 술만 마시면 의식을 잃게 되고 술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모든 사례들에서 음주동기는 심리 신체적 의존으로 나타났다. 말기는 중독자들의 음주조절능력이 상실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중기까지 은밀음주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은밀음주 생활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단독공개 음주가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난다(7명). 이들은 혼자 술을 마시지만 이제 이들의 음주문제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고 강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다. 말기에 단독은밀 음주가 나타나는 두 사례는 초기에서 중기까지 사교공개 음주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교음주를 즐기던 사람들이었으나 술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면서 밤에 혼자 은밀하게 술을 마시는 방법을 선택한 이들이다. 사교공개음주도 한 사례에

서 나타났다.

말기단계에서 중독자들은 더 이상 술을 통해 아무런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 초기와 중기단계에서 보였던 자기고양, 기분전환, 자기위로 등의 정서적 만족을 얻지 못한다. 자신의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게 되고 술 문제로 인해 주변의 제재가 가해짐에 따라 술을 끊으려고 혹은 조절해서 마시려고 시도하나 이런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에서 술을 마시는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고 후회하나 음주를 중단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죄책감, 무력감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과정에서 자살시도를 한 경우가 3사례에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중독과정의 특징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들의 성장배경, 중독과정에서의 음주형태, 음주동기, 술에 의존하는 심리기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성장배경에서 공통적으로 음주 관련 가족력이 발견되었다.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가정환경은 음주행위가 매우 친숙한 환경이라는 점이 특징이었다. 가족 중에 술 문제로 사망했거나 심각한 음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전체 사례 중 80%였다. 전체 사례 중 50%에서 직계가족 중에 술 문제로 사망했거나 심각한 음주 문제를 가진 가족이 존재하였다. 이런 결과는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가족력을 47%, 57%로 보고 하였던 국내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되는 것이

다(배성일, 1993; 정성후 등, 1997). 여성 알코올중독의 원인에 유전적 소인과 사회학습적 측면의 모방의 기제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둘째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대부분이 성인기에 최초 음주경험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남성 알코올중독자의 50%에서 음주가 청소년기 비행, 또래 집단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한 최은영(1993)의 결과나 남성 중독자의 첫 음주시기는 13-14세라고 보고한 Stacey와 Davies(1972)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본 연구 결과는 남성 알코올중독자들의 73%에서 최초 음주연령이 16-20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반면 약 85%의 여성 중독자는 20대 이후에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정성후 등(199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음주가 알코올 중독 초기단계부터 은밀한 음주형태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중독과정의 초기단계부터 가족이나 중독자에게 중요한 주변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음주생활은 중기단계까지 이어지고 말기단계에 이르러서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이다. 즉, 여성의 알코올중독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이들이 음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가족이나 중독자에게 중요한 주변인들이 이들의 음주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례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성 알코올중독의 진행이 남성보다 더욱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음주초기단계에서부터 대부분 삶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부

정적인 감정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초기 주 음주동기가 대인관계 사교목적(63.3%)이었다는 결과와는 대조적이며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경우는 대인관계 사교목적(38.1%), 가족간의 갈등(33.3%), 심리적 갈등이나 제반 정신적인 문제로 음주를 시작한 것이 23.8%라고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정성후 등, 1997). 본 연구에서 중독자들이 음주동기로 보고한 부정적인 정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서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여성음주는 정서적 요인과 관련이 많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Helzer & Pryzbeck, 1988; 박두병 등, 1996; Dixit & Crum., 2000; Schutte, et al., 1997).

본 연구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했던 질병의 진행과정과 그 안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내적 경험 세계를 사례연구방법과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 탐색해 보았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중독과정에서의 변화과정과 이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한 내적 세계에 대한 임상적 인상을 제공한 것은 앞으로의 여성 알코올 및 물질 남용자에 대한 연구와 치료의 출발점이 되는 모든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알코올중독의 치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치료의 대상인 중독자들의 세계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겠다. 환자의 내적 경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때 긴 시간동안 진행되는 알코올 중독과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중독자들의 성

장배경, 중독과정에서의 심리 사회적 요인의 측면에서, 즉 한 개인을 둘러싼 내적 환경적 요인들을 동시에 탐색해 봄으로써 이들의 질병을 한 개인을 둘러싼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라는 총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수와 편향된 표본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10명의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결과를 한국 여성 알코올중독자라는 전집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길홍 등(1973)은 습관성 여성 음주자들의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는 70년대 일반 여성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최근 여성 중독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원한 여성 알코올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하류층이 많다고 보고하였다(배성일, 1993 ; 성상경 등, 1999; 정성후 등, 1997).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에 따르면 여성에서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알코올중독 유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1). 본 연구의 사례들은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수준이 중위권인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현재 단주를 하고 있는 중독자들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함이 요구된다. 둘째 알코올 중독자들의 주관적인 회고식 진술을 통해 얻은 자료가 얼마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중독자들의 중독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이길홍 등(1973)의 연구에서 한국 습관성 여성 음주자들의 47.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주류

취급자(alcoholic manager)였다고 보고한 점으로 생각해 볼 때 충분한 여성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직업이나 남편의 음주문제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적 연구방법의 신뢰도의 문제이다. 자료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명의 평정자와 공동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감사의 과정을 거쳤으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의 소지가 작용했을 한계점은 안고 있다.

미래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중독자들에서 폭력적 가정환경이나 어린 시절 성적 신체적 학대 경험이 음주문제와 관련이 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심층적인 내용에 대한 면접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과의 상담 및 치료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다음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전집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에서는 알코올중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서적 요인과 관련하여, 은밀음주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알코올중독은 두 가지 유형(Type I & Type II)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성 알코올중독자들도 이런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성상경, 1997 ; Schuckit, Pitts, Reich, King, & Winokur, 1969). 본 연구에서는 중독과정에서 음주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는데 앞으로는 여성 알코올중독 집단 내의 보다 체계적인 하위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길숙, 한진희 (1999). 여성 알코올중독 환자의 임상적 특징.
<http://www.postech.ar.kr/webzine/content>.
- 박두병, 남범우, 신광철, 나철 (1996). 가족력 유무에 따른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임상적 차이 연구. *신경정신의학*, 35(6), 1195-1202.
- 박성희 (1996). 상담학 연구방법론의 패러다임과 분석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1), 201-235.
- 배성일 (1993). 입원한 여성 알콜중독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32(3), 407-414.
- 보건복지부 (2001).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 성상경 (1997). 여성음주와 알코올중독. *중독정신의학*, 1(1), 47-54.
- 성상경, 신동환, 송종호, 이규향 (1999). 여성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6), 1262-1272.
- 이길홍, 이수일, 김종녕 (1973). 한국인 여성 습관성 음주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한국의학*, 5(12), 524-537.
- 이정균 (1987). 한국 정신장애의 역학적 연구. *서울의대 정신의학*, 13, 15-26.
- 장연집 (2000). 건강을 위한 심리학과 현상학적 질적 연구. *질적연구*, 1(1), 13-24.
- 정남운, 박현주 (1999). 알코올 중독. *이상심리학 시리즈 10*. 서울: 학지사.
- 정원후, 김성부, 장기용, 손진욱, 박철수 (1997). 입원한 남성 및 여성 알코올리즘 환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및 인격적 특성 비교. *신경정신의학*, 36(4), 688-704.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은영 (1993). 자서전 연구방법에 의한 알코올 중독과정의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한국음주문화센터 (2002). 알코올백과, p422.
- Merriam, S. B (1994). *질적사례연구법*. (허미화 역). 서울: 양서원.
- Bensley, L. S., Eenwyk, J. V., & Simmons, K. W. (2000). Self-reported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adult HIV-risk behaviors and heavy drinking.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8, 151-158.
- Blume, S. B. (1990). Chemical dependency in women : Important issue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buse*, 16, 297-308.
- Chermack, S. T., Stoltenberg, S. F., Fuller B. E., & Blow, F. C. (2000). Gender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substance related problems: The impact of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family history of violence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 845-852.
- Dixit, A. R. , & Crum, R. M. (2000). Prospective study of depression and the risk of heavy alcohol use in wome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751-758.
- Elliott, R. (1989). Comprehensive process analysis: Understanding the change process in significant therapy events. In M. J. Packer & R. B. Addison(Eds.), *Entering the circle: Hermeneutic investigation in psychol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ortin, M. T., & Evans, S. B. (1983). Correlates of loss of control over drinking in women alcoholic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4,

- 787-796.
- Galaif, E. R., Stein, J. A., Newcomb, M. D., & Bernstein, D. P.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ion of problem alcohol use in adulthood: Exploring the influence of family factors and childhood maltreat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486.
- Gomberg, S. L. (1989). Alcoholic women in treatment : Early histories and early problem behaviors. *Advances in Alcohol and Substance Abuse*, 8, 133-147.
- Hammen, C., Henry, R., & Daley, S. E. (2000). Depression and sensitization to stressors among young women as a function of childhood advers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782-787.
- Hanninen, V., & Koski-Jannes, A. (1999). Narratives of recovery from addictive behavior. *Addiction*, 94, 1837-1848.
- Helzer, J. F., & Pryzbeck, T. R. (1988). The co-occurrence of alcoholism with othe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its impact on treat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9, 219-224.
- Hill, C. E., Thompson, B. J., & Nutt-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 Jellinek (1952). Phase of alcohol addiction.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3, 673-683.
- Klassen, A. D., & Wilsnack, S. C. (1986). Sexual experience and drinking among women in a U. S. national surve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5, 363-392.
- Murray, J. B. (1989). Psychologist and alcoholic women. *Psychological Report*, 64, 627-644.
- Schuckit, M., Pitts, F. N. Jr., Reich, T., King, L. J., & Winokur, G. (1969). Alcoholism: Two types of alcoholism in wom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0, 301-306.
- Schuckit, M. A., Daeppen, B., Tipp, J. E., Hesselbrock, M., & Bucholz, K. K. (1998). The clinical course of alcohol-related problems in alcohol dependent and nonalcohol dependent drinking women and 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 581.
- Schutte, K. K., Hearst, J., & Moos, R. H. (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drinking behavior among problem drinkers: A three-wa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392-404.
- Schutte, K. K., Moos, R. H., & Brennan, P. L. (1995). Depression and drinking behavior among women and men: A three wave longitudinal study of older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810-822.
- Skaff, M. M., Finney, J. W., & Moos, R. H. (1999). Gender differences in problem drinking and depression: Different vulner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25.
- Sorell, G. L., Silvia, L. Y., & Busch-Rossnagel, N. A. (1993). Sex-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in alcoholic and nonalcoholic wo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4, 566-573.
- Stacey, B., & Davies, J. (1972). Drinking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 Alcohol and Drug*, 17, 4-5.
- Turnbull, J. E., & Gomberg, E. S. L. (1990). The structure of depression in alcoholic wo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1, 148-155.
- Vaglum, S. & Vaglum, P., & Larsen (1987). Depression and alcohol consumption in nonalcoholic and alcoholic women. *Acta psychiatr. scand.* 75, 577-584.
- Winokur, G. (1969). Alcoholism: The influence of par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9, 1123-1135.
- Wilsnack, S. C., Vogeltanz, N. D., Klassen, A. D., & Harris, T. R. (1997). Childhood sexual abuse and women's substance abuse: National survey findings. *Journal Studies on Alcohol*, 58, 264-271.
- 원고접수일 : 2005. 2. 28
게재결정일 : 2005. 11. 7

A Case Study about Female Alcoholic's Alcohol Addictive Process

Sun-Young L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Gachon Medical School
Gil Medical Center

Hyun-Seob Cho

Director of KARF
Rehabilitation Division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of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This study was intend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relating to alcohol addictive process of female alcoholics. Ten female alcoholics were interviewed in semi-structured way an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se interview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 First, most female alcoholics had one or more family members who died from problem drinking or were problem drinkers. Most of their siblings were problem drinkers or social drinkers as well. Second, It was revealed that most female alcoholics experienced alcohol drinking for the first time in their adulthood. Third, as for drinking pattern, female alcoholics inclined to drink alone without their family knowing their drinking life from the first phase to the middle phase of alcohol addictive process. Eventually, their drinking problem was known to their family in the last phase of alcohol addictive process. Forth, It was revealed that main drinking motivation of female alcoholics was to alleviate negative affection from the first phase to middle phase of alcohol addictive process. Life problems causing negative affect to female alcoholics were summarized as relationship problems, stressful life events, intrapsychic problems. Psychological motivation for drinking alcohol were found out as distraction, self-soothing, self-grandiose. In last phase of alcohol addictive process, psychological and physical dependence were found to be drinking motivation in all female alcoholics and accordingly, female alcoholics were self-criticizing and self-abandonment due to drinking alcohol with losing self-control over drinking. As a result, suicidal attempts were reported in 3 cases.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alcohol addiction, female problem drinker, case study, qualitative analysis